



KSLA

Bulletin

자랑스러운 KSLA人

김재수 | (전)국방과학연구소

자랑스러운 KSLA人

“열정의 “기술정보인”
김재수!”



김재수 본부장님은 제가 1986년부터 계속 상사로 모셨었는데, 오늘은 우리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의 대 선배님으로서, 그 분과 함께했던 연구소 생활을 회상해 보고, 현재의 모습 등을 간략하게 소개드리고자 한다.

김재수 박사님! 김박사님은 성함에도 ‘재수’가 있으셨지만, 실제로도 재수가 있으셨던 분이셨다. 소위 말하는 官運도 대단하신데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직으로 또 최연소 본부장으로 보직을 맡으신 바가 있었으며, 퇴직 후에는 경기대학교 대우교수 및 방위산업체인 삼양컴텍의 부사장직을 맡았었고, 최근에는 분당샘물교회의 사무처장 및 약기제조사인 콜텍에서 세운 콜텍문화재단의 사무총장직을 맡고 계시니까 가히 관운은 타고났다고 하겠다. 돌이켜보면 그냥 ‘재수’만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그 분의 부지런함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분은 다른 사람보다 일찍 출근하여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체크하는 근면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며, 또 주어진 업무나 임무에 대해서는 모든 열정을 바치셨기에 가능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김박사님으로부터 감명을 받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제가 연구소에 갓 입소한 새내기 시절, ‘국방과학기술정보’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과 철학으로 지도해 주셨던 것이었다. 우선 국방기술정보관련 용어 하나하나의 사용에서부터, 국방과학연구소에 적합한 기술정보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를 항상 깊게 사고하고 계셨던 흔적을 역력히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단행본”보다는 ‘연구도서’로, ‘잡지’나 ‘정기간행물’보다는 ‘학술/군사지’로, 연구결과로 나오는 보고서, 규격서, 도면 등의 자료들은 ‘기술자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말씀하셨다.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듯이, 우리 사서들이 마치 무기처럼 다루어야 하는 기술정보 수록매체들의 이름까지도 고귀하고 중요해야 함을 아셨기 때문이라 하겠다. 우리가 일상에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길 수도 있는 문제지만, 기술정보 측면에서 연구소의 타 부서를 선도하고 인정받기 위하여, 남들보다 좀 더 계획적이고 실천적이어야 했던 그 분의 국방과학기술정보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녹아있는 용어들이라 하겠다.

자랑스러운 KSLA人

김박사님과 연구소 생활을 돌이켜보면, 업무도 중요시 하였지만 체육활동이나 여가 활동 등 레크레이션 측면에서도 대단히 열정적이셨다. 거의 매년 여름이면 야외로 실 MT를 다녀왔는데 이제야 밝히는 일이지만 영동 옥천(?)에서의 일화는 지금도 기억이 새롭다. 캠프파이어를 하기 위해서 미리 대전에서부터 땀감 장작을 많이 준비해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밤 자정 무렵부터 땀감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서 사방을 다니면서 땀감을 찾아왔는데, 마침 헌집을 헐어두었는지 장작더미가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밤새워 가져다 피우고 새벽녘 동네 분들이 깨시기 전에 부라부라 짐을 챙겨서 돌아왔던 기억이 난다. 그 때는 인심 좋은 시절이었기에 망정이지 요즘 같으면 새 집을 지어줘도 시원찮을 일이다. 또 어느 해 무창포 해변에서는 남녀가 짝을 맞추어 돌 사이에 풍선을 넣고 포옹하듯이 터트리는 시험을 했었는데, 그 때 분위기에 취하여 사이가 좋아진 젊은이들은 밤새 데이트를 하였고, 현재는 부부의 인연을 맺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또 밤새워 고스톱을 친 적도 있었으며, 축구 유니폼을 단체로 맞추어 입고서는 마치 선수 마냥 보문산 운동장에서 함께 땀 흘렸던 즐거움도 있었다. 김박사님과 함께한 그 시절은 일도 많았지만 즐거움도 많았던 시절이었다.

보안을 무엇보다 중요 시 해야 하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의 특성상 대외활동에 적극 나서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김박사님은 현재 한국전문도서관협회의 전신인 연구단지 정보관리협의회의 회장도 역임하셨고, 연구단지에 소속된 큰 규모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셨다.



〈제6회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정보실 수련회에서〉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 것이 진리이듯이, 김박사님의 그 위대함 만큼이나 그 분에 대한 주변인들의 ‘호불호(好不好)’ 또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드물다 하겠다. 온갖 노력을 기울여 국방과학기술정보센터를 만드셨지만, 시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다시 쇠락의 끝을 동시에 보셨으니,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정보센터의 생생한 증인이시다. 그분의 우산 아래 성장해온 후임 세대로서 그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너무나 많고 어깨 또한 가볍지가 않다.

여전히 활발하게 인생 제 2막을 펼쳐시고 계시는 김박사님! 우리 한국전문도서관협회에 대한 사랑도 여전하시리라 믿는다. 최근 컬렉문화재단에서의 활동은 [<http://www.ctcf.or.kr>]에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대선배, 김재수 박사님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해 본다.

글 _ 김중환